

걸그룹, 팝의 본고장 미국을 정조준하다

흥분의 해를 맞아 한국 걸그룹들의 미국 시장 공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K팝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중동, 남미까지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한 가운데 팝의 본고장 미국을 겨냥해 국내 대표 걸그룹들이 앞장선 것이다. 올 들어 국내 3대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가 나란히 자사를 대표하는 걸그룹을 내세워 미국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1번 타자는 SM엔터테인먼트. 대표주자인 소녀시대가 지난 1월 미국에서 3집 '더 보이즈'의 수록곡과 '더 보이즈'의 맥시 싱글 버전이 담긴 스페셜 앨범을 냈다. 유니버설 뮤직그룹 산하 인터스코프 레코즈를 통해서다. 소녀시대는 이어 1월 31일과 2월 1일 잇따라 미국 지상파 TV의 간판 토크쇼에 출연해 현지 시청자들에게 선을 보였다. 미국 3대 심야 토크쇼의 하나로 꼽히는 CBS TV의 '데이비드 레터맨쇼'와 동 시간대 시청률 1위를 자랑하는 ABC TV 모닝 토크쇼 '라이브 위드 켈리'에서 소녀시대는 '더 보이즈'를 라이브로 선사했다.

'데이비드 레터맨쇼'의 녹화 장소인 '디 에드 설리번 시어터(The Ed Sullivan Theater)' 앞에는 이른 시각부터 소녀시대를 보려는 현지 팬들이 몰려들었다. 소녀시대 멤버들

은 팬들에게 사인해 주며 기꺼이 환호에 화답했다. SM은 "이날 방송은 데이비드 레터맨쇼가 시작한 지 30주년 되는 날로 현지 방송 관계자들과 시청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고 전했다.

'라이브 위드 켈리'에서는 진행자 켈리가 "한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고, 미국에서도 인기 돌풍을 일으키는 그룹"이라고 소녀시대를 소개했다. '더 보이즈' 공연이 끝난 후 "너무 멋진 무대"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은 켈리는 관객들이 서툰 한국어로 소녀시대를 연호하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자 "이렇게 적극적인 관객들은 내 생애 처음"이라며 감탄하기도 했다.

여세를 몰아 2월 2일 뉴욕 유니온 스�어어의 '베스트 바이(BEST BUY)' 매장 음반 코너에서 열린 소녀시대의 미국 첫 팬 사인회에는 1천300여 명이나 몰렸다. 순식간에 인파가 들이닥치자 베스트 바이 측은 안전사고를 우려해 매장 전체의 영업을 중단했고 뉴욕 경찰도 현장에 나와 질서 유지를 도왔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매주 아시아 문화 관련 칼럼을 쓰는 제프 양은 2월 6일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



을까? 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소녀시대의 미국 무대 진출을 소개하며 성공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양은 소녀시대가 미국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큰 이유로 멤버들의 유창한 영어 실력을 꼽고 SM엔터테인먼트나 JYP엔터테인먼트와 같은 한국의 대형 기획사들이 키워 내는 재미교포 출신 훈련생들은 단순히 세계화의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문화 지배력을 세계로 뻗치려고 한국이 준비하는 '비밀병기' 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YG엔터테인먼트는 미국 MTV가 '2011 세계 최고의 신예 밴드'로 선정한 투애니원(2NE1)의 미국 데뷔 앨범을 준비 중이다. 투애니원은 2010년부터 미국 힙합그룹 블랙아이드 피스의 리더이자 유명 프로듀서인 윌아이엠과 손잡고 음반을 준비해 왔으며 이미 녹음을 마친 곡만 10곡이 넘는다.

YG는 "아직 앨범 발매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윌아이엠이 음반 작업뿐만 아니라 투애니원의 미국 진출도 직접 돕겠다고 할 만큼 적극적이어서 조만간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MTV는 투애니원을 '세계 최고의 신예 밴드'로 선정한 데 이어 투애니원의 씨엘과 블랙아이드피스의 윌아이엠·애플딕이 '2011 MAMA(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에서 선보인 합동 공연을 '2011 세계 최고의 합동 공연'으로 선정했다. 또 '2012 눈여겨봐야 할 톱걸 12' 리스트에도 투애니원을 포함시키며 잠재력을 높이 평

가하고 있다.

JYP엔터테인먼트의 원더걸스는 2009년 '노바디(Nobody)'로 한국 가수 중 처음으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인 '핫 100'에 진입(76위)하며 미국 시장에서 한류를 지켰다. 올해에는 원더걸스가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TV영화 '더 원더걸스'가 2월2일 미국 케이블 채널 틴 닉(Teen Nick)을 통해 방영된 데 이어 새 음반도 발매한다.

정욱 JYP 대표는 "TV영화 방영의 여세를 몰아 곧 미국에서 새 앨범을 낼 것"이라고 밝히고 "곡 작업은 마무리 단계이며 이미 준비해 둔 곡만 10곡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원더걸스는 새 음반이 나오는 대로 미국 20개 도시를 도는 공연도 시작할 예정이다.

K팝의 미국 시장 공략은 이제 '원대한 꿈'이 아니라 '눈 앞의 현실'이다. 미국에서 이미 상품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유명 힙합 프로듀서 스위즈 비츠(34)는 최근 서울 논현동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K팝 스타들을 존경한다"며 "카라, 빅뱅, 투애니원, 보아 등이 많은 장점이 있어 한국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도 미래가 밝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K팝의 성공을 확신한다고 말하고 "재능 있는 K팝 가수들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다. **m**

윤고는 문화부 기자 pretty@yna.co.kr

미국 CBS의 심야 토크쇼 '데이비드 레터맨쇼(The Late Show With David Letterman)'에 출연한 소녀시대는 최근 미국에서 발매한 스페셜 앨범 타이틀곡 '더 보이즈(The Boys)'를 밴드 버전으로 편곡해 선보였다. 사진제공_ SM엔터테인먼트

